2022년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22. 9. 14.

인사혁신처

목 차

≪ 「수기」 분야 ≫

1. (대상) 담당업무만 했을 뿐인데? 가슴 한편이 따뜻했던 행동과 실천 …… 2

2. (최우수상) 아기상어도 구명조끼를 입어요! 민·관이 함께 어린이 물놀이 K콘텐츠 제작 5

3. [최우수상] 검침원, 우리는 이미 '적극행정가' 입니다. …… 8

4. [우수상] 모두를 위한 따스한 혁신. 동물복지와 적극행정 …… 11

5. [우수상] 아빠! 왜 거기는 해양경찰이 없어~ …… 13

6. [우수상] "슬기로운 수의사 생활", 너도 할 수 있어! …… 19

≪ 「슬로건 & 로고」 분야 ≫

1. (대상) 적극행정, "국민행복"을 출력합니다. …… 23

2. (최우수상) 생각엔 창의 더하기, 행동엔 적극 더하기 …… 24

≪ 「영상」 분야 ≫

1. (대상) 공익(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적극행정 …… 26

2. (최우수상) 고마워요 적극 씨 …… 27

3. [최우수상] 공조(적극행정) …… 28

4. [우수상] 일 잘하는 공무원 …… 29

5. [우수상]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산시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운영 중단 위기 극복 30

6. [우수상]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보상이 궁금하신가요? 물어보세요! 31

수기 분야

제 목	담당업무만 했을 뿐인데? 가슴 한편이 따뜻했던 행동과 실천		
훈 격	대상	수 상 자	김창환, 오정훈, 김지영

보급계 물품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비중 있는 업무는 재물조사라고 할 수 있다. 재물조사는 현품의 수량과 상태를 조사하는 현품 확인 및 관리상태의 검증과정이며 상태조사 후 재물조정 및 상태 불량품의 불용처리, 활용 가능품의 무상양여와 관리전환 실시로 물품의 장기 사용을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담당자로서 재물조사 과정에 발생한 불용품 중 활용 가능한 물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고심했던 적이 있다.

작년에, 불용 된 폐로프 등을 씨00 유선업체에 무상양여하여 재활용한 사례가 있다. 올해 역시 불용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예산도 절약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했다.

<재물조사과정에 불용 처리한 물품 수거 중>

A : “B경장님 00계 창고에 노트북, PC 불용물품이 올해는 많네요. 이거 다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B : “사용은 가능한데, 보안 조치로 하드가 없고 부속물이 오래돼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정비만 할 수 있으면 활용 가능합니다.”

재물조사과정에서 불용 처리한 물품(데스크톱, 모니터, 프린터 등)

순간 노트북, 데스크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A : “계장님, 통신계 불용물품 보안 조치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기증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C : “한 번 진행해보자.”

불용 처리 전 사전회의

이후 업무는 발 빠르게 진행되어 우선 불용 전산 물품 중 활용 가능한 전산 물품을 선별하고 보안 조치 후 주변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데스크톱 17대, 노트북 35대, LED 모니터 51대, 복사기 21대, 프린터 38대, 팩스 2대, 스캐너 1대 등 총 전산 물품 7종 165점이 정비 후 기증 가능한 물품이 되었다.

또한, 고장 나거나 보안 조치로 사용이 불가한 전산 물품을 영리단체에 인계하여 사용 가능토록 정비 후 정보 소외계층에게 전산 물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협업하였다.

비영리단체 대표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많아 PC가 필요한데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라라는 미래 꿈나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라고 답했다.

제주해경, 전산 물품 160여대 양도

이러한 국민 친화적 행정은 4차 산업시대 도래로 온라인 ·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된 이른바 정보 취약계층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불용물품을 정보 소외계층에게 기증하는 적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거창한 행정이 아니다.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기관 역시 보안 조치로 폐기되거나 무상 관리전환 되는 불용 전산 물품을 정비하여 재활용 함으로써 국가적 예산 절감과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으로 한라일보 등 5개 언론사에 보도되어 해양경찰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라일보

제주해경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동참

제주해경은 자율조사를 통하 발생한 불용 물품 중 사용 연한은 지났지만 활용이 가능한 중 7종 165점을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기증된 물품은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수리 및 재조립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블럭스코리아 타임즈

제주해경,'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동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무상 양도

Corea Times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록)에서는 요즘 모든 제주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복급계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화) 매년 1회 실시하는 자율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물품 중 사용 연한은 지났지만, 활용 가능한 전산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기증된 전산 물품을 수리 및 재조립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을 에게 무상 공급과 동시에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운동으로, 이번 무상 양도 물품으로는 데스크톱 17대, 노트북 35대, LCD모니터 51대, 복사기 21대, 프린터 38대, 팩스기기 2대, 스캐너 1대 등 총 7종 165점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많아 PC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번'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화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매년 꾸준한 활동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주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윤진상기자)

다른 목소리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경, 정보소외계층에 전산물품 160여대 양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동참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록)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기증된 전산 물품을 수리 및 재조립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을 에게 무상 공급과 동시에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운동으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있다.

해경은 매년 1회 실시하는 자율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물품 중 사용 연한은 지났지만, 활용 가능한 전산 물품을 양도했다.

양도 물품으로는 데스크톱 17대, 노트북 35대, LCD모니터 51대, 복사기 21대, 프린터 38대, 팩스기기 2대, 스캐너 1대 등 총 7종 165점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많아 PC 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번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화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매년 꾸준한 활동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주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등 5개 언론사 언론보도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무가치한 물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적극 행정 의견 피력을 고민하고 있는다면 말하고 싶다.

"행동하고 실천하길"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제 목	「아기상어도 구명조끼를 입어요!」 민·관이 함께 어린이 물놀이 K콘텐츠 제작		
훈 격	최우수상	수 상 자	오동균

○ **상반된 사고결과 ①안전교육 덕분에 생존 ②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사망**

- '20. 6. 5. 인천 무의도 갯벌체험 중 일가족 4명이 불어난 밀물에 고립되었지만 10살 여아, **깊은 바다에서도 생존수영 표류 중 극적 구조**
- '22. 6. 25. 태안 해수욕장에서 아버지랑 물놀이를 하던 6살 여자아이가 파도에 튜브가 뒤집혀 사망. **사고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이였다.

○ **어린이 생활공간 '안전하지 않아' 62% 응답, 정부정책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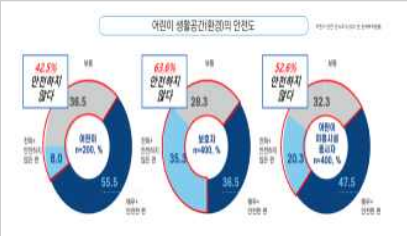
- <2022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부모·시설종사자의 약 62%가 '어린이 안전, 안전하지 않아'라고 응답했으며 또한 안전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다는 결과**였다.

○ **어린이 안전 조기 교육 필요(최근 5년 익사사고 848명중 307명이 1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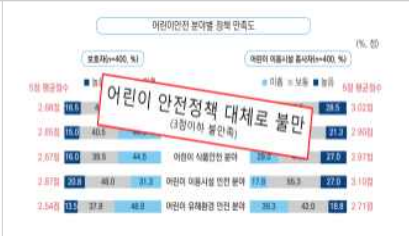
- 질병관리청 통계('15~19년)에 따르면 10대 이하가 가장 많은 307명(3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안전교육만 받았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

○ **주입식 교육자료 재미없어 "안 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필요**

- '물놀이 안전' 관계부처(행안부·복지부·교육부·해수부·해경청)에서는 매년 어린이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하지만 **만족도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영상 절실한 상황**이었다.



어린이 안전 체감 '안전하지 않다'



어린이 안전정책 만족도 '불만'

어린이 익사 사고(306명, 36%)

○ **어린이에 적합한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간기업 적극 설득 노력**

- 먼저 어린이가 좋아하는 교육콘텐츠가 시장조사가 중요했다. 「아기상어」, 「뽀로로」, 「콩순이」 등 10여개 제작사에 약 50통의 **전화·이메일 등 직접 발로 뛰며 제작사에 찾아가 제작제안 설명회**를 했다.
- 대부분 답장이 없거나 "힘들 것 같은데요"라는 식과 "제작비용이 꽤 듭니다" 등의 **부정적 답변으로 돌파구가 필요했다.**

○ 전 세계 1등 콘텐츠 <아기상어>에게 구명조끼를?

- 2. 27. <아기상어>제작사 핑크퐁에서 답변이 왔다. **"바다에 사는 상어 가족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캠페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제작비용이 최소 2억 9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였다.

○ 해양경찰관,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의지로 민-관 협업을 이끌어 내다!

- 해경청 자체 소액 예산으로는 사업진행이 힘들어 물놀이 **관계기관 행안부, 해수부를 직접 찾아가 협업 제안을 설명하며 세계 1등 콘텐츠 "아기상어도 구명조끼를 착용한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줍시다.
-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엔 부족한 예산이었다. 사업의 취지가 좋았던 걸까? 핑크퐁에 찾아가 **사회공헌기부로 도움을 요청**했고 '삼고초려' 끝에 시작됐다. [官] 해경청 55백, 행안부 80백, 해수부 55백 [民] 핑크퐁 100백

○ 드디어~ 3개부처가 하나의 목적(어린이 물놀이 안전)을 위해 뭉치다!

- 부처별 안전관리지역(행안부 내수면, 해수부 해수욕장, 해경청 연안해역)이 영상에 많은 부분이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장 내세웠지만
-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법과 중요성'을 조기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조율**했다.

○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워 하는 K-콘텐츠를 활용하다

- 기존 안전수칙 영상(20편) 분석하고 방향성을 설정했다. 결론은 '주입식 안전교육'이였다면 이번엔 **'흥미유발 위주의 교육자료가 필요하다'**였다.
-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 "아기상어 뚜루루~♬"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명조끼 착용해야하는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K콘텐츠를 기획했다.

○ 아이들이 좋아할까? 너무 너무 궁금해~!! 「어린이집 시연회 개최(2회)」

- 담당자·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교육자료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6.24/6.27) 시연회를 실시했다.
- 어린이집 교사는 **"여름 물놀이 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자료다"**며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 학습효과가 뛰어나다**"라는 호평이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해양경찰청 어린이집

최종 검토 회의

○ 아기상어도 구명조끼를 입어요~! K콘텐츠 100만뷰 달성

- 특히, **유튜브 '안전 교육 콘텐츠' 부문에서 최단기간 15일만에 100만뷰 이상을 기록**(7.19.), 여름 물놀이 전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구명조끼 교육 영상으로 맘카페 등 입소문이 호평을 이끌었다.

○ **전국 방방곡곡에 울리는 "아기상어 뚜루루~♬"** (3개부처 홍보협업)

- 전국 유치원·어린이집(3,600개소), 교육부(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교사 물놀이 안전 교육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 전국 편의점(40,000개소), 메가박스 영화관(90개소), 이마트(91개소) 전광판(150개소) 등 **7~8월 국정홍보과제로 선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 방송법을 적극 활용하여 TV공익광고 및 지면광고 추진

- 방송법 제73조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익광고 편성을 활용, **채널A·KTV·FTV·육아방송 TV 공익광고**(매일 1~3회/ 7~9월)
- **해경청-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육아방송) **협업**을 통해 주요일간지(10회 지면광고) 송출해 총 합산 추정액 약 5억원 이상의 협업을 진행해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협업을 통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 민간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물놀이 안전문화 생태계 조성'

- **1탄**(애니ver)**은 해양경찰청이 주도**하고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공동 제작, 2탄**(실사ver)부터는 핑크퐁의 **사회공헌기부**로 민간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환경을 만들어**
- 3탄부터는 핑크퐁 자체 제작 <여름 바다여행>편(제작중)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물놀이 안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며,
- 지속적인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부처 간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해경-행안부-해수부-교육부-복지부) 구축으로 행정력 통합·집중과 국민의 안전할 권리 증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탄> 구명조끼 노래

<2탄> 구명조끼 율동

<3탄> 여름 바다여행(안전)

제 목	검침원, 우리는 이미 ‘적극행정가’입니다.		
훈 격	최우수상	수상자	구본식

우리 사회에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용어 이전에 이미 자신의 위치에서 적극행정을 행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시민과의 접점에서 직접대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을 이끌어가는 존재, 우리는 검침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한 수용가에 방문하여 여느 때처럼 수도검침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했던 지역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계량기의 경우, 겨울이 끝나는 3월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누수안내를 드리기 위해 시민과 직접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수용가의 수도계량기도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고, 누수가 발생한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문을 두드리자 한 할아버지께서 불편하신 거동으로 나오셨습니다. 수도검침원이라고 소속을 밝히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인상을 구기시며 수도세 받으러 왔냐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연체내역을 살펴보니 이미 몇 달 째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 연체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연체료 때문이 아니라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누수를 수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할아버지께서는 버럭 화를 내시며, “돈 없어!”라고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용 걱정에 대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할아버지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저의 권한에 대해 설명드리고, 더 나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수도검침원으로 수도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수용가에 안내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 심사 분에게

할아버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렸습니다. 담당 심사 분께서는 할아버지의 자격요건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기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음 번 검침 때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부여잡고는 아무도 본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수도검침을 위해 한 수용가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위치해있어 벨을 눌러 수도검침원임을 밝히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집주인 할머니께서 머리에 손을 짚으신 채 문을 열어주시고는 머리가 아파서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 들어와서 검침을 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수도검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에 놀라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가보니 할머니께서 풀썩 주저앉으신 채로 거친 호흡과 함께 어지럼증과 울렁거림을 호소하셨습니다.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니께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119에 신고해드릴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뇌종양 수술 이후 가끔 있는 증상이라며 119 대신 아들 분께 먼저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드님과 통화해본 결과, 아드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에 따라 119 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며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곧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현장 위치를 정확히 몰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큰길로 나와 길안내를 해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을 받고, 이웃집에 쓰러지신 할머니의 보호를 부탁드리고 큰길까지 나가 길안내를 해드린 끝에 안전하게 구급대원 분께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번 검침 때 다시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다며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문할 때마다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검침원으로서의 자부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용어 중, MOT(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객이 기업과 만나는 접점의 순간’을 의미하며,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느끼는 찰나의 시간을 통해 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공적인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시민이 공공서비스와 만나는 접점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검침원은 적극행정가로서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목	모두를 위한 따스한 혁신, 동물복지와 적극 행정		
훈 격	우수상	수 상 자	조현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능동적 작용을 행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행정이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지난겨울, 지금은 필자의 가족이 된 한 유기견과의 반려 생활이 시작되었다. 반려인의 삶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대문구의 동물복지는 지금껏 필자가 생각하였던 편견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필자는 지금껏 동물복지는 민간단체와 시민봉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흔히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구조의 구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버넌스는 기업과 국민 그리고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항상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그리고 동물 학대의 문제에 있어 필자는 정부 차원의 참여와 관심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기업, 국민 그리고 정부 중 어느 한쪽의 참여라도 부족하다면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바깥쪽에 위치한 동물복지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나 서대문구에서 첫 반려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는 나의 지나친 편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고양이의 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던 찰나, 필자는 집 앞 공원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중성화 수술)을 용이하게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 TV에서나 보던 동물복지를 눈앞에서 직접 보았을 때, 서대문구의 행정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대문구의 또 다른 동물복지 적극 행정은 거버넌스의 다른 차원을 움직인다. 정부의 참여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동물과 공존을 유도하는 포스터를 배포하며, 어린이 동물교육 사업과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제공한다. 유기동물 입양과 치료비 등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동물복지에 있어 적극 행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적극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적 목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대문구청의 동물복지는 창의성과 전

문성 그리고 공익을 모두 잡은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다. 고양이 급식소를 구청 차원에서 제공하며, 관련 의료 지원금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일정 수준이 관심과 전문성이 없다면 떠올릴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놀랐던 것은 이렇게 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지원 및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지원하는 곳이 일자리 경제 부서라는 것이다. 일자리 경제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복지 행정을 지원한다는 점이 놀랍다. 이는 적극 행정이 단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혹자는 적극 행정의 기준을 사람에게 어떠한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또 다른 혹자는 적극 행정이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내었는지를 중요시할 것이다. 분명히 이는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책 과정과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고려하고자 한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이를 민간과 함께 협력하며 이루고자 하는 과정은 여느 적극 행정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동물복지는 국민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을지도 모른다. 해결이 시급하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기업, 경제적 규제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청의 동물복지와 적극 행정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비록 이러한 행정 작용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인식 제고와 문제 해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직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모두의 뜨거운 감자인 분야가 아님에도, 공익을 위하여 정책 실행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모든 기관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 분야의 기반이 될 것이다. 즉, 다수의 관심을 얻지 못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 아래 각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대문구의 동물복지 적극 행정 사례가 공직 사회의 역할모델이 되어 또 다른 복지 개선 사례를 낳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제 목	아빠! 왜 거기는 해양경찰이 없어~		
훈 격	우수상	수 상 자	서필석

해양경찰로 입사하여 여러부서를 발령받아 근무하다 지난해 2월 경찰서 홍보실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경찰서 홍보업무가 생소하였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떨림 등으로 홍보업무를 시작하였고, 하나둘 배우고 몸으로 익히며 홍보업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에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이 다가왔고,

자택이 있는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아침마다 약 40~50분 출근하는 일은 보통일은 아니지만 즐겁게 출근길에 오르던 중 순천만잡월드 10월 개관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대형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전에 볼품없던 넓은 땅에 큰건물이 덩그러니 위치해 저건 뭐지 하면서도 별생각없이 지나쳤던터라 큰 관심이 없었다.

출근 후 보도자료 모니터링 중 우연히 순천만잡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홈페이지에는 호남권을 대표하는 거점형 직업체험관으로 소개하며, 어린이 28개 직업체험관과 청소년 34개 직업체험관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그 순간 우리 해양경찰도 있나? 하면서 홈페이지를 찾기 시작했다. 소방서, 경찰서, 119구조대, 과학수사대,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조경사 등 진짜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이라는 직업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 뭐지 하면서 왜 없을까? 잠깐 생각에 잠겼다.

해양경찰 직업체험을 추가로 신설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순천만잡월드 관계자에게 전화를 시도해 봤다.

안녕하세요! 여수해양경찰서 홍보실장 서필석입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순천만잡월드 관계자와 통화를 이어나갔다. 순천만잡월드 직업군 중 해양경찰이 없는데 추가로 넣을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중이여서 어렵다는 입장을 말했고, 항후 리뉴얼(renewal)때 협의해 보자는 답변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되었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나중에라도 기회되면 꼭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등 언론매체에 "호남권 최초 직업체험관 순천만잡월드 개관 본격 운영" 이라는 내용을 봤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른 얼마 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순천만잡월드에 직업체험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순천만잡월드 직업체험을 가기전에 체험 직업을 미리 선택해야한고 말하며, **"아빠! 거긴 해양경찰 없어?** 딸의 한마디에 순간 당황했지만 어~ 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생길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딸에게 한 말들로 출퇴근길에 항상 길에 보이는 순천만잡월드가 계속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 날때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곤했다.

그렇게 아쉬운 1년을 보내고 검은호랑이해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한해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일상 업무를 보던 중 본능이 이끄는데로 순천만잡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됐다.

그 순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순천만잡월드와 함께 할 파트너사를 모집한다” 는 내용이였다.

당장 순천만잡월드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파트너사 관련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장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흥쾌한 답변이였다.

현장방문 날짜 조율 후 홍보실 직원들과 순천만잡월드 관계자분들과 만남이 성사됐다. 현장방문을 통해 직업체험관 운영현황과 해양경찰 체험관 신설 등을 의견 나누었다.

첫 방문이후 해양경찰 직업체험관을 신설해야겠다는 생각은 더 확고해졌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경찰 이라는 직업의 비전 등 중요성 면에서도 순천만잡월드 관계자들도 충분히 공감한 상태였다.

순천만잡월드 내 해양경찰 직업체험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다. 그중 운영비 부분이 제일 컸다. 순천만잡월드 내 해양경찰 체험관을 운영할려면 매년 5천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해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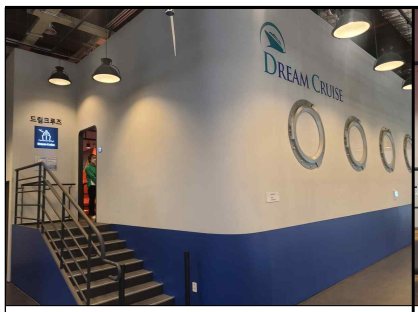
순천만잡월드는 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3만4천㎡(10,285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62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순천시에서 민간운영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청에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할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도움을 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방법은 무조건 운영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하는게 목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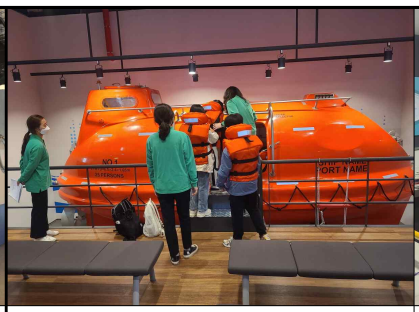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해양경찰, 순천시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천만잡월드(운영사)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운영비와 해양경찰 체험관 신설 운영 문제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여러 의견이 오고가고 몇 번의 업무협의와 내부회의를 거쳐 결국 드림크루즈 부스내 해양경찰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는걸로 확정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영비 문제도 어렵게 면제라는 답을 얻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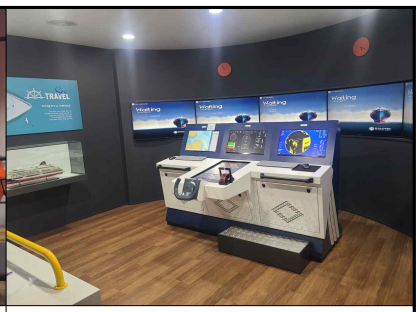
드림크루즈는 기존 항해사와 크루즈승무원을 체험하는 곳으로 항해시뮬레이터와, 비상구조선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였다. 여기에 해양경찰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기 위해 내·외부 부분 인테리어공사와 교육커리큘럼과 영상 제공, 제복 등 부속물들이 필요했다.



드림크루즈 외관



구명정 비상탈출



항해 시뮬레이터

여기에도 걸림돌이 존재 했다. “타 기관 시설사용에 대해 자체 예산을 사용할수 있는냐?” 라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해 본청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심의결과를 초초하게 기다리게 되었다.

다행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는 “가결” 되어 예산을 집행할수 있게 되어 본청 대변인실의 예산도움을 받아 추진할수 있었다.

또한 교육용 영상 제작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 타 기관에서 제작된 해양경찰 직업소개 및 장비소개 영상 등을 찾아 저작권 권한을 부여받아 재 편집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지이 않던 매듭들이 하나둘씩 풀려 가고 있었다. 시작이 절반이다는 말처럼 내·외부 설치 디자인 변경을 시작으로 해양경찰 체험관 신설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순천만잡월드 드림크루즈 체험강사들의 해양경찰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서, 구조대, 함정, 파출소 등을 둘러보며 체험 및 현장 견학을 통해 해양경찰 직업에 대한 임무 등 중요성을 알려 신설되는 해양경찰 직업체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해양경찰 체험관 시설 설치 마무리 및 각종 제복, 홍보물등이 비치되 교육프로그램도 새로만들어져 드디어 드림크루즈 해양경찰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강사진 2명으로 구성되어 12명의 학생들을 1일 4회로 총 90분씩 해양경찰, 항해사, 크루즈승무원 3개 직업군을 통합 운영한다.

O·T 진행 ➡ 직업(소개)교육 ➡ 직업체험(위기상황 대처 미션) ➡ 소감발표 ➡ 마무리

해양경찰 체험관 외관

내부 항해 실습장

내부 교육장

해양경찰 제복 착용

순천만잡월드 내 해양경찰 직업체험은 시작이 되었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해양경찰 직업에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다.

또한 해양경찰 직업체험관 신설에 따른 여수해양경찰서와 순천만잡월드간 상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식 진행으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순천만잡월드 견학

드림크루즈 해양경찰 체험시설 내부

업무협약식

이렇게 약 5월개월에 걸쳐 추진됐던 해양경찰 체험관 신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실제하는 일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수 있도록 직업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운영비 문제로 추진 자체가 무산될뻔 했으나 순천시와 순천만잡월드의 관심과 협력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로 해양경찰은 큰 예산절감을 통해 해양경찰 직업체험관 신설을 확보하고 순천만잡월드는 다양한 직업군을 확보해 호남권을 대표하는 거점형 직업체험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서로가 상생발전하게 되었다.

덧붙여 우리 딸, 아들에게 거기 해양경찰도 있어! 말할수 있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순천만잡월드에도 해양경찰이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제 목	“슬기로운 수의사 생활”, 너도 할 수 있어!		
훈 격	우수상	수 상 자	김충현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코로나로 인해 친지들을 만날 수 없었던 작년 추석, 넷플릭스로 ‘오징어게임’을 정주행하다가 우연히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연이어 시청하게 되었다. 드라마속 의사들은 마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들간 대화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담백·간결·명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시술할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언어들을 다 내려놓고, 환자의 언어, 가족의 언어로 말의 높이를 낮추어 풀어주었다. 풀어주는 말에는 따뜻한 말의 온기가 담겨 있었고, 사명감과 책임 의식도 뿜어 나와 보는 내내 큰 감동을 받았다. 드라마란 거울을 통해 조류 병성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검역본부 조류질병과 김충현 연구사입니다. ○○○농장이지요. 저번에 의뢰하신 폐사축에서 피씨알검사와 병리조직검사를 통하여 전염성기관지염 야외주가 확인되었네요. 법정 전염병이여서 군청에서 ‘이동제한 명령’공문이 나갈 거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에 잘 더 알고 있을 거예요. 당분간 입식과 이동을 제한해 주시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축산농가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필요한 말은 빠지지 않았지만, 농장주가 느낄 염려와 걱정은 내 말투에서부터 이미 차단하고 있었다. 참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움이 가슴 속 깊이 내려앉아 고민이 되었다. 나도 ‘슬기로운’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부끄러움’에서 출발한 ‘검역본부의 쉬운 질병이야기’기획

추석 연휴 점심시간, 직원들과 이야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퍼지다가 내가 느낀 그 ‘부끄러움’의 지점에서 모두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나만의 생각이 아님을 공감했다. 시간이 흘러 잠시 잊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작년 12월 ‘내년도 업무 계획’ 회의 시간에 해결책을 제안하셨다.

“김 박사, 저번에 고민했던 거 있잖아. 한국육계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닭고기』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면 어떨까? 병리 사진을 칼라 지면으로 담으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구독자들도 좋아할 거야. 한번 기획해 봐”

야호! 말만 들어도 힘이 절로 났다. 그날부터 과장님은 월간닭고기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칼라 지면을 할애해 달라 설득하셨고, 협회 김효진 부장도 흔쾌히 승낙을 하였다.

월간닭고기 2월호
(왜 닭 대장균은 호흡기부터 시작할까요?)

월간닭고기 4월호
(심장이 작아 슬픈 짐승)

‘검역본부의 쉬운 질병이야기’ 기획 연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첫 시동은 ‘왜 닭 대장균증은 호흡기부터 시작할까요’로 걸었다. 이 질문은 포유류에서 조류 병성감정으로 업무가 바뀐 나의 첫 질문이기도 하다. 대장균증이 닭에서 가장 많이 감염되는 질병이지만, 정작 문헌을 찾아보아도 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닭의 호흡 생리와 해부학적 구조까지 접근해서야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닭의 대장균증은 포유류와 달리, 횡경막없이 기낭(공기주머니)을 통해 호흡하는데, 기낭은 면역세포가 적어 호흡기를 통하여 몸 전체에 감염되는 특성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닭의 대장균증을 에베레스트 등정 사례로 설명하였다. 발간되고 난 후 주위 동료와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쉽게 풀어 고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들려왔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독자들의 반응을 생각하니 그때의 행복감이 고스란히 밀려온다.

이어 두 번째로 연재한 '심장이 작아 슬픈 짐승(월간닭고기 4월호)' 에서는 육용 종계(고기용 닭의 어미 닭)의 급성폐사증후군(Sudden death syndrome)으로 진단한 사례를 생생하고, 현장감있게 기술하였다. '육계는 왜 보행장애가 자주 나타날까요(월간닭고기 6월호)' 은 2족 보행하는 사람과 조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8월호에 발간될 예정인 '전쟁・첩보, 영화같은 닭의 면역이야기' 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면역과정을 영화처럼 기술하였다.

나에게 '적극 행정' 이란 작은 소시민 감성과 작은 찔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물 질병을 통해 고통받은 축산인에게 어떻게 하면 전문지식을 따뜻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검역본부의 쉬운 질병이야기' 로 해결되었다. 또한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으로 회신될 때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이 느껴졌다. 일을 하다 보면 떳떳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을 혼자만 고민하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공론화 될 때 '적극 행정' 은 시작된다.

슬로건 & 로고 분야

슬로건	적극행정, “국민행복” 을 출력합니다.		
훈 격	대상	수 상 자	김봉길, 문철주
로고 디자인			

슬로건	생각엔 창의 더하기, 행동엔 적극 더하기		
훈 격	최우수상	수 상 자	권순영
로고 디자인	적극행정 생각엔 창의 더하기 행동엔 적극 더하기		

영상 분야

주 제	공익(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적극행정		
훈 격	대상	수 상 자	채충희
참가작품 기획의도	암초가 많은 저수심 해역에서의 익수자 구조는 연안구조정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구조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여 활용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었던 서프보드를 발굴해 인명 구조에 활용하고 있다. 관행(수영)에 머무르지 않고 공익을 위해 보다 개선된 방법을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패러디 해 기획·제작했다.		

(영상) 채00-공익을 도모하는 적극행정

(영상) 채00-공익을 도모하는 적극행정

주 제		고마워요, 적극씨		
훈 격		최우수상	수 상 자	최병민, 최민지
참가작품	기획의도	적극행정으로 도움을 받은 풍년 씨, 청춘 씨, 울진 불영사 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주인공, '적극 씨'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적극씨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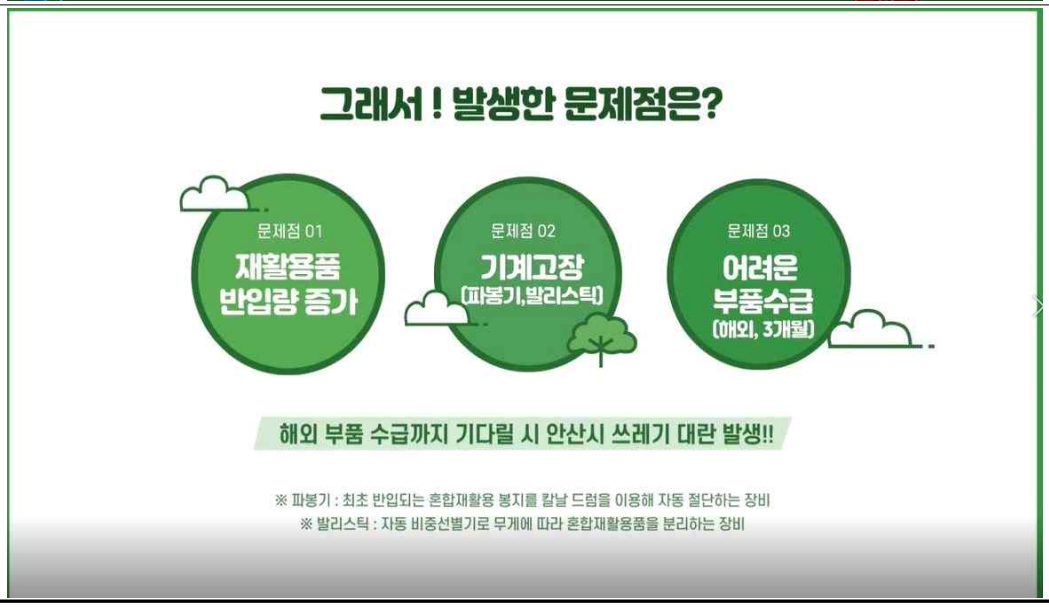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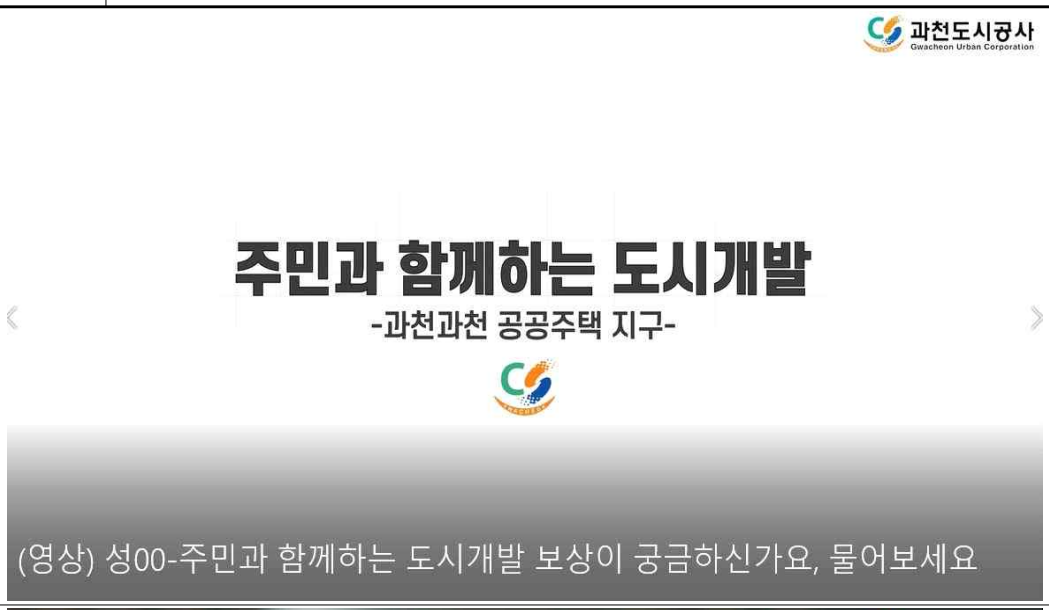
주 제		공 조(적극행정)		
훈 격		최우수상	수 상 자	이선민
참가작품	기획의도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5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막상 사고가 터지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뻔한 탁상행정...그만할 때 됐잖아? 이제 적극행정이 대세 아니냐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 지자체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원이 뭉쳤다!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를 위한 열혈 환경인들의 공조 업무일지. “잘 만든 제도는 사람의 인생도 바꾼다던데... 비상대응계획? 그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건데 안 중요하겠어?”		

(영상) 이00-공조 short

(영상) 이00-공조 short

주 제		일 잘하는 공무원		
훈 격		우수상	수 상 자	우태경, 최영준, 전희정
참가작품	기획의도	종종 발생하는 선박의 전복사고는 매우 위험한 해양사고로, 전복선박의 수중수색 및 고립자 구조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 이에 포항해경 구조대 소속 최영준 경사는 팀과 함께 자체적으로 훈련장 도입을 건의하고 계획을 수립, 이외에 구조대응력을 더 높이기 위한 수중장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적극행정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팀과 함께 하는 것을 표현		

주 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산시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운영중단 위기 극복		
훈 격	우수상	수 상 자	서원선
참가작품 기획의도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는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혼합 재활용 쓰레기(하루 평균 100톤 이상)을 반입 받아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을 통해 매각업체로 반출 처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과 함께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활용선별센터의 기계고장 등이 예상되었습니다. ▶ 일일 반입물량을 처리 못할 경우 처리량 누적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발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는 선제적 대응(적극행정)의 조치를 통해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 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보상이 궁금하신가요? 물어보세요!		
훈 격		우수상	수 상 자	성연우
참가작품	기획의도	3기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보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안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료법률 상담센터의 콘텐츠 영상으로 상담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례를 토대로 주민들과의 소통 및 갈등 해소 등의 필요한 요소, 효과 등을 매력적인 스토리로 소개하기 위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영상입니다.